

인민은행 LPR 공고: 재정 선행 없이 금리 못 내린다, 7 월도 동결로 원칙 재확인

2026.07.20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

시장이 이번엔 정말 내릴 줄 알았다. 중국 인민은행(PBOC)은 7 월 4 일 2 분기 통화정책위원회에서 "역주기 조절 강도를 키우겠다"고 선언했고, 7 월 15 일에는 상반기 금융통계가 나오면서 사회 전체 자금조달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7.4%, 통화량(M1)도 4.0% 급락한 것이 확인됐다. 선언도 있었고, 데이터도 있었다. 금리 인하 기대가 꽤 높아진 상태였다.

그런데 결과는 동결이다. 오늘 발표된 7 월 대출 기준금리(LPR)는 1 년물 3.0%, 5 년 이상 3.5%로 6 월과 완전히 같다. 공고문 자체는 딱 두 줄짜리 표준 형식 — 숫자만 적혀 있고 배경 설명도, 완화 의지 표현도 한 마디 없다. 인민은행이 스스로 "공급은 강한데 수요가 약하고 디플레이 압력이 있다"고 인정했음에도 LPR 을 독자 카드로 꺼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.

핵심 독해는 이렇다.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타이밍은 재정 정책과 조합해야 한다는 전략적 순서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. 추가경정예산이나 특별국채 발행 같은 재정 측 선제 행동이 없으면, 인민은행은 LPR 을 먼저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다. 데이터가 나빠도, 신호를 높여도, 재정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대기한다.

다음 관전 포인트는 8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다. 여기서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될 경우 인하 트리거가 작동할 수 있고, 그 결과는 8 월 20 일 LPR 발표에서 확인된다. 당분간 시장의 인하 기대는 8~9 월로 미뤄진 상태다.

과거와 비교 (같은 분류 최근 분석)

발행일	핵심 메시지
2026-07-20 (이번)	신용 부진에도 7 월 LPR 인하를 유보한 PBOC 는 실질적인 인하 트리거를 추경·특별국채 같은 재정 확장으로 명시적 조건화했으며 하반기 통화-재정 정책의 협조를 의도하는 전략적 관망 입장이다.
2026-06-22	신용 부진에도 6 월 LPR 을 동결한 PBOC 는 완화 사이클 선언을 종료했으며, 온-오프쇼어 정책 조합(동결·긴축·금리 코리도 정밀화)으로 하반기 재정 정책 향배를 기다린다.

PBOC LPR 정책결정: 신호와 불일치

일시/항목	정책신호·지표	해석·시사점
7 월 4 일 통화정책위원회	2 분기 MPC '역주기 조절 강도 확대' 선언	완화 필요성 공식 인정
7 월 15 일 금융통계	사회 자금조달 7.4%↓, 통화량(M1) 4.0%↓	신용·통화 임펄스 급락
7 월 20 일 LPR 결정	1 년물 3.0%, 5 년 이상 3.5% (동결)	신호와 불일치, 시장 기대 외면
PBOC 의 조건부 완화 전략	추경정예산·특별국채 미결정 상태	금리 단독이 아닌 재정-통화 정책 조합 중시
다음 관찰 이벤트	8 월 전인대 상무위 회의, 8 월 20 일 LPR 발표	인하 기대는 8~9 월로 이연됨

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조재운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자료는 인공지능(AI)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,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